



산업자원부 FTA팀장 박기영

주요국간의 FTA체결과 우리 수출에의 영향

255, 이 숫자는 지난 1월까지 WTO에 공식 보고된 전 세계의 FTA 체결 건수이다.

1, 이번 숫자는 수차례의 격한 반대시위와 몇번인가의 국회비준 연기의 진통 끝에, 무역규모 세계 13위인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건수이다.

WTO는 현재 발효중인 FTA만 약 190여건 정도로 추정하는 한편,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그 발효건수가 약 300여건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FTA내 무역비중이 2005년에는 세계 무역비중의 50%를 상회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듯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어느새 WTO체제에 의한 다자주의와 함께 세계통상질서의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다자주의 일변도의 통상정책을 고수해 왔던 우리나라에게도, 적극적인 FTA체결을 통해 무역과 투자의 규모를 확대하는 통상정책으로의 대응을 자연스럽게 요구하고 있다.

물론, FTA가 지나친 세계경제의 블록화로 인한 국제적인 무역분쟁 등 통상질서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FTA정책은 다자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 병행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수출은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견인차로 비유될 만큼 우리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런 역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에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5월까지의 수출입통계(잠정)에는, 누적 무역흑자가 124.4억불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수출이로다' 하고 실감케 하지만, 우리의 주요 세계시장에서, 수출기업들이 겪는 애로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수출이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이다.

해외 수출환경 변화 중의 하나는 중국의 급부상이다.

한국의 주요 세계 시장점유율이 주춤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하루가 다르게 괄목상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의 우리제품의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그 확연한 위기감을 엿볼 수 있다.

〈표1〉 한국과 중국의 對미국 시장 점유율 추이

	1990	1993	1996	1999	2001
한국	3.7	2.9	2.9	3.1	3.1
중국	3.1	5.4	6.5	7.8	9

〈표2〉 한국과 중국의 對일본 시장 점유율 추이

	1990	1993	1996	1999	2001
한국	5	4.8	4.6	5.1	4.9
중국	5.1	8.5	11.5	13.8	16.6

그런가 하면, 멕시코에서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가 높은 관세로 인해 멕시코의 FTA 역내국들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서 향후 수출애로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외에 EU시장에 편입된 헝가리에서도 역외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높은 관세로 인해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조금 성격이 다른 예도 하나 들어보자.

우리는 작년 한해, 222개국 중 대미수출 세계 7위를 기록하며 관세로만 9억 4,400만 달러를 납부하여 납부금액 순위는 4위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과 FTA체결국으로서 각각 대미 수출 1위와 3위를 차지한 캐나다와 멕시코가 납부한 관세는 고작 1억 7,000만 달러와 1억 9,400만 달러이다. 우리나라의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가만 두고볼 일이 아닌 이런 사례들에 대한 해답이 FTA이다.

앞서 몇가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FTA는 그 체결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외국으로서의 차별을 제거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 확보한 위치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FTA를 "선택이 아닌 필수"라 표현하

는 것을 우리는 쉽게 듣게 되는 것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우리산업 중 몇몇 산업들에게는 위기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피해를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FTA는, 지난 90년대 후반의 수입선다변화 해제와 ITA 협정체결 등이 우리산업의 질적 변화와 체질개선에 기여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최종 폐지하던 1999년 6월 당시,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했던 가전제품, 승용차, 일반기계 부문의 업체들이 단계별 해제일정에 맞춰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하는 동시에, 특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위기에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현재에는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주력산업으로 성장한 사실은 다시 한번 FTA라는 세계경제변화에 적응해야하는 우리 산업계 모두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韓·美·日·EU 등 60개국에 참가하여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IT산업분야 203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한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도 업계의 적절하고 지혜로운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각각의 IT관련 품목들이 ITA 협정이후 보여주는 수출증가세는 우리IT업계의 ITA협정 체제에 대한 빠르고 적절한 적응을 대변한다.

〈표3〉 ITA체결 이후 주요 품목별 수출 변동

(단위 : 백만불)

	1996			2002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컴퓨터 부품	405	878	473	4,257	955	3,302
휴대폰	440	415	25	9,785	147	6,638
DRAM	7,101	225	6,876	5,968	265	5,703
녹화용마그네틱	823	21	802	442	10	432
평판디스플레이	684	943	259	8,432	1,924	6,508
합계	9,453	2,482	8,435	28,884	3,301	22,583

DRAM이 98년 이후 줄곧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무선전화기의 對美시장 수출이 미국시장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등 주요 ITA 품목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제 몫을 해주고 있다.

이런 결과에는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ITA의 긍정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방 확대와 경쟁 촉진의 외부충격이 가해진 결과, 기업과 산업내 비효율이 구조조정을 통해 제거되고, 자원이 재배분되는 경쟁력 제고 효과가 생긴 것이다.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과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정부의 '보호와 지원'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경쟁'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 혁신 마인드를 갖추고 스스로 변화, 적응,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기업 성패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산업정책은 더 큰 시장의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계경제구조의 변화가 장벽 없는 글로벌 경쟁을 가속화할 것이 확인해지고 있는 현실점에서 FTA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조금의 도움도 되지 못한다. FTA 추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FTA의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맘껏 이용할 궁리를 해보자.

첫째, 외국과 FTA 체결은 우리기업의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국의 시장규모와 산업경쟁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FTA를 체결하면 우리 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현지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고 제3국 기업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둘째, FTA는 경제전반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쳐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한다.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시기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산자 우선, 수출위주의 사고를 갖게 되었으나 21세기 환경에서는 교정이 필요한 것이다.

생산과 소비,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통해 국민경제의 기초체질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수출능력을 배양하여 중국의 기술 추격을 방지하고 중국과 수직적 분업화를 통해 우리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 한·중간의 기술격차가 2010년경이면 대등한 수준으로 좁혀져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분야에서 우리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중국이나 선진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은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FTA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위한 가장 좋은 환경으로 작용한다. 누구와, 어떻게 적절한 FTA를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얼마든지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일본기업들은 한국이나 ASEAN보다 중국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만약 일본과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된다면 일본의 투자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일본의 투자를 우리나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가 가능한 것은 FTA가 필연적으로 개방과 규제완화를 동반하여 역내 기업의 투자를 증가하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1993년까지 연 4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던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NAFTA에 가입한 94년 이후 매년 약 100억 달러씩 유입되고 있다.

현재 블랙홀이라 불리며 전세계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중국시장을 겨냥하고 투자하는 외국기업 중, 생산비 요인보다는 우수한 인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중국의 제도와 소프트웨어에 불안감을 느끼는 기업들의 투자를 한국으로 전환할 결정적 기회도 생기게 될 것이다.

이밖에도 FTA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국내 제도와 관행의 글로벌화, 비관세장벽철폐 등 간과해서 안되는 긍정적 요소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철폐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 일본의 對韓 실행관세율은 평균 2.9%로 한국의 대일 평균실행 관세율 7.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관세인하 효과는 전반적으로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었으나, KIEP 연구 결과, 대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비관세 장벽이 관세장벽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각국과의 FTA협상을 위한 관세양허안과 원산지규정안 마련작업을 총괄하며 느끼는 것은 우리의 기업들이 FTA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FTA라는 세계경제 흐름에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걸맞은 전략을 찾아 내야한다.

글로벌 경영전략 하에서 준비하고 경쟁하는 기업은 기회를 얻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한계기업은 사라져 갈 것이다. ●

디지털전자 무역수지 42억달러 흑자 달성



우리나라는 지난 5월 디지털전자 분야에서 41억 9,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5월중 디지털전자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6.6%가 증가한 83억1,000만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은 26.8% 늘어난 41억2,000만달러였다.

이에 따라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수출은 393억3,300만달러, 수입은 210억2,400만달러를 기록, 누적 무역수지 흑자가 183억9,000만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mp3플레이어는 5월 누계로 8,300만달러어치를 수출, 전년동기대비 61.9% 증가했고, 5월중에는 1,7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4.1%가 늘었다. mp3 플레이어는 1997년 국내 앰피맨닷컴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제품으로 최근에는 플래시메모리형 mp3폰, HDD형 mp3폰 등 신기술 융합제품의 출시가 확대되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와 정보기기가 각각 전년동월대비 82.0%, 35.5% 증가했다. 세계 휴대폰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유럽형 GSM방식 휴대폰의 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카메라폰과 mp3폰 등 고가형 컨버전스제품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컴퓨터는 휴대용 컴퓨터가 전년동월대비 66.9% 감소한 4,000만달러를 기록했으나, 개인용컴퓨터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60.0% 증가한 2,400만달러를 나타냈다.

디지털가전기기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 확산과 국내 기업의 현지공장 및 현지 로컬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전용부분품 수출 증가로 미국·중국·일본 등 10개국으로의 수출량이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42.3% 증가한 1억3,000만달러로 호조를 보였으며, 반도체 부문도 69.7% 증가한 23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미국(9억8,600만달러), 중국(7억8,300만달러), 홍콩(6억9,600만달러) 등 대부분 지역에서 흑자를 기록했지만, 일본에서는 4억1,500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산자부는 5월 디지털전자 수출입 실적과 관련,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고,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은 유선통신기기와 냉장고를 제외한 모든 주요 품목에서 수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자부는 6월중 수출은 국내경기 회복지연과 중동정세 불안, 고유가 현상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회복과 디지털전자 업계가 수출 중심 마케팅 전략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면서 수출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